

인사의 말씀

한국육아지원학회 회장 장 영 희

2009년 새해를 맞이하여 회원 여러분 모두 소원하시는 일 이루시고,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에도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회원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리며, 앞으로 더욱 회원 여러분들이 직접 참여하고 공감하고 함께 발전할 수 있는 학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08년도 본 학회에서는 특히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우수한 인적자원개발 및 질적 향상을 위한 평가체제 구축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조명해보고자 하였습니다.

동계방학 중 연구소모임을 통하여 '유아교육 장단기 효과연구' 를 살펴보고, 이에 기초하여 춘계학술대회에서는 '미래를 위한 교육투자: 생애초기교육' 이라는 주제로 생애초기부터 질적으로 우수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한바 있습니다.

이어 추계학술대회에서는 국가적으로 질 관리 체제 구축을 위한 평가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발표와 토의의 장을 마련한바 있으며, 2009년 동계방학 중에도 연구모임을 갖고자 하오니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본 학회에서는 춘계, 추계 학술대회 및 연구모임과 함께 연 2회 '육아지원연구' 를 발행하고 있으며,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하여 질 높은 학술지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회 주요사업과 함께 앞으로도 새로운 연구동향과 정보를 지속적으로 회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하오니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용희(상임이사: 이화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안녕하십니까!

기축(己丑)년 새해를 맞아 육아지원학회 회원님들의 평안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2008년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 경제가 장기 불황 국면으로 접어든 가운데 새해를 맞으니 희망을 갖기 보다는 더 이상 절망하지 않기를 바라는 비관적 모습들이 보여 마음이 무겁습니다. 사립유치원들에서 2009학년도 원아모집에 고전을 겪고 있는 것도 이러한 경제 위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경제 위기의 영향을 가장 심하게 받는 층이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들인데, 이들 부모들이 자녀를 사립유치원에 보낼 엄두를 못 내고 국공립병설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립유치원들이 원아모집에 고전을 겪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유치원보다 시기를 조금 앞당겨 원아를 모집한 영어학원으로 유아들이 빠져나갔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참으로 어이없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1997년 초등학교 3학년의 정규교과로 채택된 이래 영어교육의 시작 시기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5세부터 조기영어교육을 시키려는 부모들이 최근 몇 년간 급속히 증가해왔는데 올해는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입니다.

부모들이 고질병-학습 조급증, 불안증, 경쟁심-으로 인해 유아기 자녀를 정규교육기관인 유치원이 아닌 영어학원으로 밀어 넣는 것은 참으로 물지각한 처사입니다. 이 유아들은 국가수준의 유치원교육과정을 배우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상당수 유아들이 불행하게도 영어 몇 마디를 배우는 대신 수많은 심각한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음이 연구를 통해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유치원이란 명칭을 사용할 수 없음에도 버젓이 영어유치원으로 표기하고 '영어교육은 빨리 시작할수록 효과적'이라며 부모들을 현혹시키는 영어학원들에 대한 보다 강력한 법적 제제/대처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작년 6월 경 유치원의 만5세 여자아이가 깊은 한숨을 내쉬어 교사가 이유를 물었더니 유치원을 마친 뒤 영어학원에 가야 하는데 숙제를 다 못해서 가면 선생님한테 혼이 날 것이라 그랬다고 했습니다. 이 여자아이는 “유치원은 나의 안식처예요. 나의 휴식공간이에요.”라고 하소연을 하더니, 두 팔로 머리를 감싸고 “점심시간에 점심을 먹지 말고 숙제를 할까?” 중얼거리더군요. 그래도 이 여자아이는 유치원을 다니고 오후에 영어학원을 가는 것이라 그나마 다행입니다. 유치원 대신에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는 영어학원을 다니며 긴 시간을 보내는 유아들의 처지와 미래는 참으로 딱하고 가엽기만 합니다.

우리의 유아들에게 새해 희망을 물어보면 어떤 대답을 할까요? 제 생각에 유아들이 새해에 갖는 희망은 ‘더 이상 조기영어교육, 과열 학습, 조기특기교육에 시달리지 않고 정상적인 유아교육기관에서 행복한 유아기를 보내는 것’일 것 같습니다. 행복한 유아기를 보장해주는 유아교육의 목표는 ‘조화로운 전인 발달, 훌륭한 인성 발달, 창의성 발달, 민주시민으로서 도덕성 발달’입니다.

육아지원학회 회원님들, 기축(己丑)년 새해에 유아들이 유아교육의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돕는데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할 것을 제안합니다!

1. 학회활동보고

1) 학술대회 및 세미나 개최

- ① 2008년 한국육아지원학회 춘계 학술대회
 - 일시 : 2008년 4월 12일 (토) 오전 9시 ~ 오후 1시
 - 장소 : 성신여자대학교 수정관 420호 대강당
 - 학술대회 주제 : 미래를 위한 교육투자 - 생애초기 교육
 - 학술대회 참석인원 : 255명
- ② 2008년 한국육아지원학회 추계 학술대회
 - 일시 : 2008년 11월 10일 (토) 오전 9시 ~ 14시 30분
 - 장소 : 성신여자대학교 수정관 420호 대강당
 - 학술대회 주제 : 유아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평가의 역할과 과제
 - 학술대회 참석인원 : 220명

2) <육아지원연구> 발간

- 제 3권 1호 발간 : 2008년 4월자로 발간
- 제 3권 2호 발간 : 2008년 10월자로 발간

3) 연구모임

- ① 제24차 연구모임
 - 일시 : 2008년 6월 27일 (월) 오전 10:00 ~ 12:00
 - 장소 : 성신여자대학교 성신관 110호
 - 주제 : 육아지원 관련 연구방법분석 및 연구와 심사에서의 윤리
 - 발표 : 김희진(이화여대 유아교육과 교수)
 - 참석인원 : 50명
- ② 제25차 연구모임
 - 일시 : 2008년 7월 14일 (월) 오전 10:00 ~ 12:00
 - 장소 : 성신여자대학교 성신관 816호
 - 주제 : 유아기 논리교육의 현황
 - 발표 : 박은혜 (이화여대 유아교육과 교수)
 - 참석인원 : 20명
- ③ 제26차 연구모임
 - 일시 : 2008년 7월 21일 (월) 오전 10:00 ~ 12:00
 - 장소 : 성신여자대학교 성신관 816호
 - 주제 : 초등학교 논술교육
 - 발표 : 오성욱 (한국교육대학교 부속초등학교 교감)
 - 참석인원 : 15명
- ④ 제10회 연구모임(제2차 재정세미나)
 - 일시 : 2007년 11월 26일 (월) 오후 6:00 ~ 8:00

- 장소 : 배화여자대학교 목련관
- 주제 : 국가 재정운용과 교육예산
- 발표 : 박준 (교육인적자원부 재정총괄과장)
- 참석인원 : 20명

2. 회원동정

<임용 소식>

- 김혜경 (CTS) : 아이코리아 연수원장겸 보육교사교육원장 임용(2009년 1월)
CTS 이사겸 영유아문화원장 직은 비상근직으로 함께 수행 예정

<저서 발간 소식>

- 서은주(한서대학교). 찾상머리에서 이루어지는 우리아이 인성교육(2008). UCN
- 심성경(원광대학교) 외 9인 보육학 개론(2009). 공동체